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시편 126,5)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시간을 이기지는 못하네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올해 가을은 추석이 빠르네요. 한해의 농사를 거두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사는 어느 민족에게나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조상들께 감사드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수용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님들의 출소 후까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구에서는 갈 곳 없는 출소자를 위하여 쉼터를 마련하고, 또 기술은 있지만, 창업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소자본을 무담보로 대출하는 기쁨과희망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교구들도 두부 공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단기 쉼터 등의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주교구에서는 출소자 형제들 몇 분과 신부님, 후원자분들이 함께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생명을 가꾸는 보람을 느끼고, 또 생명을 키워주시는 하느님을 느끼며 그분께 더욱 의지하게 되는 출소자 형제들을 보게 되었다는 원주교구 교정 담당 신부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시편 126,5) 시편의 저자는 바빌론 유배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만 하지 않고, 하느님을 믿고 일어나 앞으로 나가자며 격려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분명 기쁨 속에서 추수할 것이라며 희망을 잃지 않고 노래합니다.

감옥에서 나와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잠시이고 앞길이 막막한 출소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에게 관심을 더 기울인다면, 사회에 잘 정착하면서 재범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조금의 관심을 서로 서로에게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때 조상께 차례를 드리고 한동안 못 만난 친척을 찾아가 모이는 이유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음이 나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관심 덕분이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찾아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만 쟁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쟁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관심을 가져,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함께 “환호하며”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추석의 마음일 듯합니다.

올가을 추석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정시설 옥서기 얼음물 지원



각 교정시설(성인, 청소년)에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얼음 생수와 특별 간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10,000병), 서울동부구치소(12,500병), 서울남부교도소(5,500병) 모든 수용자에게 얼음 생수와 서울구치소(2,800개) 서울동부구치소(2,500개), 서울남부구치소(2,300개), 서울남부교도소(1,200개)에 아이스크림을 지원하였고, 고봉중고등학교와 분류심사원 청소년들에게는 7, 8월 매주 1회(총 10회) 아이스크림을 지원하였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지쳤을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밀(범죄 피해자 가족) 가족 아유회



8월 11일(목) 경기도 양주시 장흥유원지에서 해밀 가족 아유회가 있었습니다. 해밀 가족들과 직원 가족들이 동반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유회를 통해 내면의 아픔들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서울구치소 최고수 정순택 대주교님 미사 집전



8월 12일(금) 서울구치소에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이 미사에는 최고수(사형확정자) 5명과 봉사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님은 미사를 통해 최고수들을 격려하며 간식 꾸러미를 전달하였습니다. 최고수와 미사를 함께 해 주신 정순택 대주교님과 봉사자, 서울구치소 관계자분들에게 큰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제9차 정기총회



8월 17일(수)~19일(금) 성앵베르센터에서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제9차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사제, 수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2022년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회의의 방향과 수용자들, 출소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도움을 모색하며 친교를 도모하는 자리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봉의 아이들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은미 클라우디아_고봉중고등학교 봉사자

“클라우디아, 너 고봉중학교에 가서 영어 좀 가르쳐 보지 않겠니?” 한 10년 전쯤 조금은 갑작스러운 도마 신부님의 전화였습니다. “고봉중학교요? 저기가 어딘데요?”가 저의 첫 대답이었지요.

소년원을 달리 부르는 이름이라는 말을 듣고 전 좀 당황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소년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에게도 스쳐 지나갔었지요. 그때는 아직 어렸던 저의 세 아이들 핑계를 대며 아직 제가 그만한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신부님께서는 저의 속마음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할 건 없고 그냥 아이들이야. 어른들의 잘못으로 거기 들어와 있는 ‘그냥’ 아이들.”

신부님의 이 말씀은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제 마음속에, 뭐랄까 제철하지 못한 숙제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의 일로 외국 생활을 몇 년 하다가 귀국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와 고봉의 인연은, 더 정확히 말하면 고봉의 아이들과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긴장되고 약간은 무서워 웬지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음을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와는 좀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아이들 주변을 어정쩡하게 서성거리다가 제가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어느 한 미사 시간에 일어났어요. 그 전부터도 유독 눈에 띄게 프로그램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날 미사 시간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는 것 같진 않았지만, 정말 단 한번도 고개를 들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날 저는 일부러 그 아이 옆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고 주님의 기도를 노래하는 때가 되었을 때 용기를 내어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저도 순간적으로 뭐가 내가 단단히 잘못했구나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도 저도 주님의 기도 노래가 끝날 때까지 서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후 그 아이는 고

개를 들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는 매주 와서 저와 인사하고 함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나중에 자기 고향 이야기와 여기서 나가고 난 후 어디로 가서 어떤 종류의 직업교육을 받겠다는 등의 장래 계획을 서로 얘기 나누면서, 전 항상 그 작은 스킨십이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잠깐 손을 잡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작은 스킨십을 해주려고 계속 신경 쓰게 되었지요. 자잘한 칭찬이나 잔소리를 곁들이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느낀 점은, 아이들은 정작 우리가 준비해 가는 프로그램이나 간식 (물론 간식은 매우 중요하고도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보다는 그저 보통의 아이들이 엄마에게서 받을 수 있었을 만한 관심과 제스처를 더 갈망한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아이를 두루두루 살펴 주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갔던 아이들은 하나같이 모두 마음을 열고 그 나이의 아이들이 보여줄 직한 해맑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고 지금은 아이들이 모두 장성하였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오해, 제 힘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버리는 짜증, 아이들의 성격이나 속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몰아가기 등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지요. 그 과정에서 고봉에서의 생활은 저의 아이들이나 제가 일하는 중에 만나는 다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의 시선을 바꾸어주고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고봉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고봉의 아이들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지금까지의 고봉에서의 시간이 하느님의 은총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아이들을 다시 만날 날을, 발을 동동 구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될까요. 어서 다시 가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두드리며 아이들과 함께 자라고 아이들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새 삶을 디자인하라 - 영농테라피



안경진 스테파노 신부 / 원주교구 교정·경찰사목부



“신부님~”.

“저는요, 다시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같은 죄를 지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저 자신이 싫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해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출소 후에 거처할 곳도 의지할 수 있는 가족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회하기에 간절해지고, 절망의 늪이 얼마나 아픈지 알기에 절박해지고, 희망이 주는 놀라운 힘으로 삶이 성장하기에 진실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간절함은 기회를 보여주고 절박함은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실은 희망을 보여줍니다. 죄가 성화의 은총으로 바뀌는 순간이며, 악습이 회심으로 변화되는 신비의 시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박함으로 기도했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출소 후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또 후회하고 절망을 느끼고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가? 분노가 올라오고, 불만이 나를 뒤흔들어놓고, 의심과 불신은 적의를 품게 하는가?

만 9년 동안 교정사목을 하면서 만난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어쩌면 하느님을 믿고 말씀을 따른다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악습과 재범으로 인해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관계들, 신뢰, 희망 앞에 주저앉은 형제들, 그들에게로 보내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길을 찾던 중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요한 15,1)라는 말씀이 묵상 중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농부, 그들은 하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이들이 아닌가? 모든 것을 의탁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생명을 복음은 전하고 있지 않은가? 농부의 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영농 테라피”였습니다. 땅의 “질서” 안에서 생명의 신비를 깨닫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 자연의 “온유함”을 배우고, 마침내 “그동안 남에게 해를 입힌 손이었다면, 그 손으로 생명을 키우고 보호하는 손, 곧 기도의 손”이 되게 하는 치유 농업이었습니다. 영농테라피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가는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농사 안에서 성직자, 멘토, 봉사자, 후원회원, 출소 형제 등이 함께 같은 처지에서 일하고 먹고 기도하며 서로에게 의지하는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한 시간을 통해 형제들과 우리는 점점 말씀 안으로 동화되어 갔습니다. “기쁨, 봉사자들은

일할 때 힘들 텐데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 왜? 섬김의 은총. 고통,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면 고통과 아픔이 기쁨과 감사함이 되는 은총. 대속, 은총이 지향을 둔 이웃의 삶에 닿아서 다시 얻은 그의 기쁨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은총. 이타적인 마음,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어서 내가 한 번 더 움직이면 다른 이가 덜 힘들게 하는 은총. 봉사, 생명을 해쳤던 그 손으로 생명을 가꾸고 보호하는 손이 되게 하는 은총. 온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그것까지 아낌없이 나누게 하는 은총. 함께,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길은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길이었다. 너의 삶에 내가 함께하겠다. 주님의 길을 걷는 은총.” 이렇게 은총은 함께 하는 그 시간을 축복해 주고, 그 시간에 머무는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한 “영농 테라피”, 그 은총으로 ‘히카마(암빈)’라는 작물을 정성을 다하여 키우고 감사와 기쁨의 땀을 흘렸습니다. 히카마라는 작물을 선정한 것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히카마에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이눌린 성분이 많아서 당뇨병자,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고, 올리고당도 풍부하여 장 건강,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뿌리 작물로 아픈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3월부터 9월까지 긴 시간 준비하고 키워낸 히카마가 숙성기간을 거쳐 10월 중순 무렵에 출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판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기도하고 주위에 도움도 청했습니다.

영농 테라피를 통해 얻은 수익이 새 삶을 열어주는 형제들의 자립지원금이 되고, 앞으로 함께 할 많은 형제의 희망이 되어주는 거름이 되고, 섬김의 손,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나 당신 자녀의 힘들을 지켜보시기 가장 힘드신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형제들과 땀을 흘립니다. 하느님의 동반자이신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님들의 기도와 관심에 희망을 얻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영농 테라피>

* 히카마 구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 문의: 010-9057-1268(엠마오농장)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상00 / 2022년 창업대출자 (의류 제조)

- ▶ 모두 창업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20년 동종업에서 일한 경험의 기술과 경력 중심으로 창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출소 후 주위 지인들의 도움으로 힘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 ▶ 일반인에게 현재 업종의 장단점과 특성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젊은 층에 도전하게 하여 배움과 의류에 대한 지식을 알려 배우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점은 기술인력 부족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자금의 문제였고 출소 후 조금씩 모은 돈과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빌렸던 자금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 ▶ 창업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영업상황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영업하시면서 나만의 비법이 있으십니까?
- 코로나로 인해 처음에는 힘든 부분도 있었고, 1년이 된 지금은 거래처 확보와 인지도에서는 최고라 생각합니다. 의류 제품의 완성도, 남들이 하기 힘든 고퀄리티를 주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 ▶ 앞으로의 영업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있다면?
- 직원과 거래처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술을 다시 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 인정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 ▶ 현재 업종에 대해 예비창업자에게 충고해준다면?
- 시장 확보와 업종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사전 준비와 자금 등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야 할 것입니다.
- ▶ 업종과 관계없이 창업하고자 하는 주변의 예비창업자에게 꼭 해주고 싶은 주의사항이나 당부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 창업지원 제도에 에 대한 개선 점을 제시한다면?
- 제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었고 서류상으로만 아닌 여러 번의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판단해주었으면 합니다.
- ▶ 기쁨과희망은행에 대하여 한마디 한다면?
- 저같이 신용이 안 좋은 사람에게도 다시 재기를 위한 도움과 앞으로의 삶에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그리스도의 평화

이렇게 신부님을 뵈게 된 지도, 또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젠 여름 방학이 시작되어 한동안 뵈지 못하게 되어 아쉬움이 정말 크게 남습니다.

이곳 훈련생이 아닌 원래 있던 곳이었다면 어쩌면 아쉬움이 덜 할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훈련생이라는 정해진 시간 때문인지 이 한 달이라는 시간도 무척이나 아쉬운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쪼록 무더운 이 여름을 모두가 무탈하게 잘 보내고 아쉬움만큼이나 더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광주에서 2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긴 세월 수용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수도 없이 겪어 왔었는데,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언제나 신앙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음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에 제 신앙에 자신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분께서 보여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믿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편치만은 않은 이곳 생활입니다.

때로는 미래가 무척이나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제가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언제나 저를 비롯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신부님의 기도와 사랑이라면 저희들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부님께서도 저희의 기도에도 힘입으셔서 이 무더운 여름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 다시 또 확산하는 코로나19에서도 잘 지내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방학이 끝나고서는 저희에게 더 많은 사랑 주시고 또 여러 행사와 좋은 말씀으로 더욱 하느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2년 8월

명OO 올림

*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명OO 형제님이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형제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2022년 10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 | | |
|--------------|------------|-------------|
| ▶ 10월 17일(월) | 오전 10시 30분 | / 동서울 광장동성당 |
| ▶ 10월 24일(월) | | / 서서울 양천 성당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 행사 알림

- 9월 1일(목)~12월 1일(목) 제23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 교정사목센터 / 14:00 (매주 목요일)
- 9월 5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 10:30
- 9월 19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광장동성당 / 10:30
- 9월 26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양천성당 / 10:30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7/15~8/18)

2022년 7월~8월에는 강윤숙 마리안나, 이해련 헬레나, 장재석 레오, 최연주 베로니카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정덕남 아녜스께서는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